

#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 개선을 위한 생활지도 정보 요구와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 간 관계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Information Need about Guidance and Perception regarding Educational Guidelines to Improve Teachers' Perception of Educational Instruction

김진명 (Jinmyung Kim)\*\*

이지연 (Jee Yeon Lee)\*\*\*

### 초 록

본 연구는 교사들의 생활교육에 대한 정보요구와 교육청으로부터 배부되는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 인식 간 관계를 밝혀 이를 기반으로 한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 제안에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제작하고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예비연구를 통한 심층면담을 분석하여 연구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추출하고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경기도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권역별 3개 학교에 설문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217부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도서관의 생활교육 정보요구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실행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를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information needs regarding guidance and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guidelines issu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The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viewing theoretical background studies, and questionnaires were found in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in a pilot study. Gyeonggi Province is divided into four regions, which is the target of the survey. Teachers of three schools in each region were surveyed, and eventually 217 copies of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role of school libraries in caring for teachers' information needs ultimately influences the improvement of teachers' guidance. Based on this result, the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by school libraries. In particular,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esented a potential service plan that can be performed by school libraries to help address teachers' information needs about guidance in schools.

키워드: 학교도서관, 교사인식, 생활교육, 정보요구, 교육지침, 회복적생활교육, 정보서비스  
school library, teachers' perceptions, student guidance, information need, educational  
guidelines, restorative life education, reference services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3499).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myung0314@naver.com)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lee01@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2년 5월 9일 ■ 최초심사일자: 2022년 5월 26일 ■ 게재확정일자: 2022년 5월 31일

■ 정보관리학회지, 39(2), 131-157, 2022. <http://dx.doi.org/10.3743/KOSIM.2022.39.2.131>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내의 정보센터로서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도서관법 제 17706호).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2015, p.10)는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수·학습센터”로 학교도서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학교교육”은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생활교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활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동의어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은연중에 학습하게 되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박채형, 2019). 즉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생활교육지침은 2010년 공표한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며 과거와 달리 학생중심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2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사건을 기점으로 엄벌주의를 내세웠으며 교육 당국의 서로 다른 대책으로 인해 교사들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현재와 같이 교육공동체 전체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갈등을 지속하며 방치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학교도서관에 있다. 2016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 설치 의무화되었고, 2018년 학교도서관의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개정안도 통과되었다(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368호). 물론 1인 사서교사 체

제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마저 인력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는 대부분 사서교사가 대출·반납과 같은 단순 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서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단순 노동에 투입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가대출반납기 및 퇴직교직원 지원 서비스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법률적 뒷받침과 학교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지향점은 학교도서관의 환경이 교사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충분히 구축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생활교육 실태가 활발하게 연구되어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개발되어있는 해외(Gonzalez, 2012; Lustick, 2016; Payne & Welch, 2015)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교사들의 생활교육 실태나 생활교육 시 발생하는 정보요구 분석에 대한 접근이 소극적인 편이다. 학생인권조례나 회복적 생활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사례(강인구, 김광수, 2015; 김은아, 2017)가 있으나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교도서관에 연구를 적용하기는 역부족이다. 최근 교과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교육정보요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계민정, 김기영, 2019) 이마저도 교과교육에 대한 정보요구로 범위가 한정되어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정보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즉, 현재까지는 교육청의 생활지도 정책에 대한 교과교사의 인식과 교사들의 정보요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학생생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와 관

련된 정보문제를 학교 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 및 활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 제안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정보요구와 교육청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교육지침 인식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도서관에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학생인권조례, 회복적 생활교육, 기타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2.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정보요구빈도, 정보이용동기)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계(영향관계 및 평균차이)가 있는가?
- 연구질문 3.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학생 간 갈등 해결 실태, 학생 상담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질문 4. 교사들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이용자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사서교사는 존재 목적을 다하여 교육목표 달성

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학생생활지도의 개념과 영역

학생생활지도는 광역적으로 교육과정, 교육방법, 장학, 훈육, 과외활동, 출·결석,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포괄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교과지도 외의 교육활동”으로 제한된다(김영래, 2014, 18). 오늘날의 교육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입시 위주,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부적응이나 학교폭력사건과 같이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첨예해짐에 따라서 생활지도는 교과지도와 마찬가지로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는 행위,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행위를 주된 학생생활지도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가 ‘학생인권조례’와 ‘회복적 생활교육’ 개념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첫 시작으로 서울, 광주 교육청에서도 제정 및 공포되었다. 경남 등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꾸준히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도성훈 인천시 교육

감은 2019년 3월 학생인권조례 선행연구을 위촉하여 조례 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제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창우, 2019).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청의 정책이면서 현재까지도 교육계의 중요한 이슈로 구성원들 간의 논쟁을 낳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원래 사법 분야에서 사안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비난, 강제, 처벌, 배제”의 응보적 정의가 아닌 “치유, 조정, 자비,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를 학교에서 적용하는 접근방식이다. 즉, 처벌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목적이다(서정기, 2011).

그 외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매년 ‘경기도교육기본계획’을 개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책은 당해연도 단위 학교의 교과교육이나 생활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 교육청의 2019년 생활교육과 관련한 주요 시책으로는 경기자유학년제, 사계절방학, 고교학점제,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이 있다.

## 2.2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

도서관은 자료나 시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 즉 학교도서관은 시설과 자료와 같은 기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성과라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이병기, 2018). 넓은 의미에서 도서관 서비스는 정보서비스 이외에도 자료의 선정, 수집 등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서관의 간접활동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협의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직접서비스, 그중에서도 정보서비스에 한정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바라본다.

Deng(2014)은 1876년부터 1920년까지 도서관 참고서비스의 진화에 대해 분석했다. 이는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임용고사에서 여전히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등 사서교육에서 중요한 이론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사서교사를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주체로 설정하였기에 Deng이 다룬 참고서비스 이론 중 James Wyer의 참고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Deng(2014)에 따르면 James Wyer가 참고서비스의 3가지 철학에 관해 보수이론(conservative theory), 중도이론(moderate theory), 진보이론(liberal theory)으로 최초로 명명했다. 위의 세 이론은 도서관에서 서비스의 범위를 얼마만큼 넓힐 것인가 하는 정보서비스 수준과 관련된다.

보수이론은 정보서비스의 중심 개념을 지도·안내로 보는 견해이다. 즉,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정보를 찾는 법을 교육하여 스스로 찾게 만드는 소극적인 서비스로, “최소이론 혹은 교육이론”이라고도 부른다. 반면 진보이론은 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의 제공이 정보서비스의 본질이라고 믿는 관점의 이론이다. 즉, 이용자의 정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최대이론, 자유이론”이라고도 한다. 중도이론은 “보

수이론이 진보이론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단계적 성격의 봉사이론”이다.

교사와 학생은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핵심 이용자이다. 이때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는 보수이론에 가깝다. 사서교사의 정보활용교육이나 도서관활용교육, 독서교육 등의 서비스가 결국 학생들 스스로 정보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이병기, 2018).

그러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서비스는 학생 서비스와는 달라야 한다. 이미 정보 ‘서비스’라는 용어에서 진보이론의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거니와 도서관 마케팅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진보이론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현재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사서교사 체제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이 진보이론을 바탕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학교공동체 내 교사의 숫자는 학생들보다 적으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과교사의 인식이 협력수업 시행의지를 높이고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신윤정,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들에게는 진보이론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 하에 교사들의 생활교육 관련 정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하였다.

### 2.3 교사들의 교육정보요구

국내의 정보이용자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

후 오늘날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연구방법론이다(이지연, 김준섭,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자로서의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는 드물다. 2000년대 들어서야 교사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사의 교육정보요구와 관련한 국내 최초 연구는 김중환(2001)이 교사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실시한 정보요구 조사 분석이다. 김중환은 초·중·고등학교를 망라하여 600명의 교사들을 표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보의 필요도 차원에서 교수활동영역에서 보다 학생지도영역에서 더욱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경력 교사들보다 저경력 교사들이 학생지도영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출처에 대한 선호도는 저경력 교사들은 동료교사, 연수기관, 인터넷, 전문단체 순으로, 고경력 교사는 동료교사, 인터넷, 연수기관, 전문단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동료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미화(2001)는 김중환의 연구와 달리 대상을 초등학교 교사로 한정하여 정보요구를 파악했다. 부산광역시 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5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김중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수학습영역과 학생지도영역의 정보를 경영활동영역 및 개인개발영역 정보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지도영역에서만 평교사가 부장교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저경력 교사가 고경력 교사보다 학생생활지도 정보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는 김중한 연구의 결론과 같다.

김정미, 이제환(2010)은 교사들이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원으로 도서관을 선택하는 일이 거의 없음을 인지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를 4가지로 나누었을 때 교수활동, 학생지도, 자기개발, 학급운영 순으로 정보요구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정보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은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적소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부장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정보행태적 특성으로는 정보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 비공식적 정보를 선호한다는 점, 현장 중심의 정보를 선호한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선미(2012) 또한 교수지도, 학생지도, 경영활동, 자아실현으로 직무를 나누고, 직무에 따른 정보요구를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 또한 동료교사를 중심으로 학급경영과 학생지도에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초등교사의 정보이용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유중(2017)은 교사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했다. 현장의 교사들이 아닌 학위취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생이 연구대상인 만큼 앞선 연구들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다. 교육전문대학원생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학업에서 가장 정보요구가 높

게 나타났으며 직무분야에서는 학생생활지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다. 선호하는 정보원은 온라인 교사커뮤니티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동료 및 전문가, 세미나·연수자료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인 계민정, 김기영(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교육정보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데 비해, 고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들이 교사들의 전반적인 정보요구, 직무에 대한 정보요구에 초점을 두었다면 해당 연구는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정보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요구의 수준도 높았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습자료 정보원 요구 등이 있었고, 각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자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연구와는 달리 국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 예비교사, 생물교사 등 교사들의 범주를 다양화해서 연구대상을 좁혀 진행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양적연구를 주로 하여 빈도분석에 그쳤던 국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주로 질적인 연구를 선택하여 이용자들의 심층적인 정보행태를 파악한 연구들이 있었다. Perrault(2007)는 교사들의 온라인 정보추구행태가 교사들의 교수-학습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과 학교도서관 매체 전문가(사서교사)와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Perrault(2007)는 72명의 뉴욕주 생물교

사들을 표본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10명의 연구참여자를 선발하여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온라인 정보추구행태가 다음의 네 단계로 이루어짐을 밝혀냈다. 첫째, 교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추구에 착수한다. 둘째, 수집한 정보를 교수-학습 계획과 통합한다. 셋째, 그들의 교수 전략을 수정한다. 넷째, 피드백을 위해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가 정보원을 검색한다.

Kim과 Roth(2011)는 부임 1년 차 초임교사들의 업무 관련 정보 추구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18명의 경력 교사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1년 차 교사 시절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장벽 요인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는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업무 관련 정보를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이나 문화 등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Tanni(2012)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채널과 정보원의 유형을 연구했다. 총 23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들의 정보채널로는 본인의 소장자료 웹, 도서관 등 7개 범주가 조사되었다. 정보원으로는 교재, 도서, 개인파일 등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hipman, Susan, Kimberly(2015)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표 1〉 교사의 교육정보요구 관련 선행연구

출처	연구방법, 대상	연구 내용
김중환(2001)	양적연구 초·중·고교 교사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영역, 정보출처, 정보탐색 만족도, 정보탐색 관련 요인을 연구
문미화(2001)	양적연구 초등교사	초등교사의 교사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 주제와 정보출처 분석 연구
김정미, 이계환(2010)	양적연구 초등교사	초등교사들의 정보행태 분석을 통한 도서관 비이용요인 파악 연구
박선미(2012)	양적연구 초등교사	초등교사의 개인별 차이에 의한 정보필요도와 정보이용행태 연구
김유중(2017)	양적연구 교육전문대학원생	교사와 대학원생으로서 역할에 따른 정보이용행태 연구
계민정, 김기영(2019)	양적연구 교육전문대학원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교사들의 교육정보요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Perrault(2007)	질적, 양적연구 생물교사	교사들의 온라인 정보추구행태와 교수-학습 계획과의 연관성 연구
Kim와 Roth(2011)	질적연구 초임교사	경력 1년 차 교사들의 업무 관련 정보 수집 시 이용 장벽 요인 연구
Tanni(2012)	질적연구 예비교사	예비교사들이 수업지도안 작성 시 사용되는 정보채널과 정보원 조사 연구
Shipman, Susan, Kimberly(2015)	양적연구 현직교사	교사들의 선호 정보원과 도서관이용자교육 수수료와의 상관관계 연구

통해 정보검색행위 및 정보원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정보원 등과 도서관이용자교육 수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직교사들의 전문정보 검색을 위한 목적으로는 웹사이트, 동일교과목의 교사, 워크숍과 현직자료, 학교관리자와 행정전문가 등의 순서로 응답되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교육 수강 여부와 교사의 전문정보 추구를 위한 정보원은 16개 항목 중 사서교사, ERIC, 디지털도서관 DB, 교육청 간행물 사용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도서관 이용자교육은 교사들이 정보원 인식을 향상시키고, 정보활용능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과교육에 대한 정보요구만큼이나 생활교육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다. 하지만 생활교육에 대한 정보행태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생활교육에 대한 정보요구에 한정하여 정보이용행태를 탐색하는 것이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발전과 후속 연구에 더욱 필요하다.

### 3. 연구 설계

#### 3.1 예비연구

예비연구의 목적은 학생생활지도 변화에 대한 개별 교사들의 인식과 그와 관계가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문항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사를 총 4명 선정하여 중립적 질문을 이용한 반구조화된 방식의 1:1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예비연구의 결과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요인들을 파악했다. 중립적 질문이란 개방형 질문, 폐쇄적 질문과 비교되는 질문 방식이다. 이는 이용자(심층면담 대상자)가 자신의 정보요구를 정보 전문가의 용어가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정보 필요성을 표현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질의를 이해할 수 있다(Dervin, 2008). 반구조화 인터뷰는 기본적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심도 있는 질문으로 발전하는 방식이다. 반구조화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는 심층면담 초기에 교사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학생인권조례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심층 질문을 통해 교사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피면담자의 선정 방식은 중등학교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일반계 학교 교사 가운데서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식 중 임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영향 요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 각각 다른 부서에 속한 교사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면담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60분이 넘지 않도록 한정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취록을 전사한 문서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피면담자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번호	교직경력	학교 특성	연령대	성별	업무적 특성	심층면담 시간
교사A	4년	남녀공학 고등	20대 후반	남	수학과 연구부 3학년 담임	40'23"
교사B	4년	남자 고등	30대 초반	남	사회과 학생부 2학년 담임	52'22"
교사C	14년	여자 중등	40대 중반	남	수학과 연구부 1학년 담임	49'13"
교사D	10년	여자 중등	30대 후반	남	예체능 교무부 비담임	40'36"

심층면담 수행은 사전 약속을 잡은 뒤 피면담자의 편의를 위하여 면접 대상자의 근무 학교에서 1:1로 진행하였다. 주로 교내 도서관 등 연구 대상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심층면담 후 연구 대상자에게 추가 질문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우선으로 연락하여 심도 있게 질의를 진행하였다. 추가 질의는 평균 2-3회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표 3〉의 심층면담 기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시작하여 이후 추가 질문들을 통해 심층 질의를 이어갔다.

기본 질문의 내용은 교사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 피면담자의 일반사항과 학생생활지도 지침에 대한 인식만으로 구성하였

다. 그 이유는 예비연구 단계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정보요구가 '내면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정보요구에 대한 사항은 인터뷰를 하는 도중 교사들이 은연중에 하는 답변들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을 시 추가 질문을 하여 상세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파악했다.

예비연구 수행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각각 교육청의 생활교육 지침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었다. 교사A와 교사D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A는 학생 인권조례 공포 이후 생활지도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회복적 생활교육

〈표 3〉 면담 질문 내용

질문 내용	
일반사항	학교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학교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교육청의 생활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도	생활교육 변화 지침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생활교육 관련 교내·외 연수를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교육청 지침이 변하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계신가요?
기타	학생 이해나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에 대해서는 그 효과의 긍정성을 인지하면서도 타 기관과의 협력이 '행정적 업무량을 늘리'기도 해서 인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식했다. 또한 기타 교육 지침 중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D는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시행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정신노동'과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포함한 기타 교육지침에 대해서는 '당황스럽다'고 표현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지침이 '다양한 부분에서 자주 바뀌'며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 그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교사C는 전반적인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해 '좋은 취지다', '학교 내에 생기면 좋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교내연수를 주선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의 개념을 동료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등 교육청의 교육지침을 긍정을 넘어 지침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시작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교사B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학생안전인권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등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고 그저 객관적인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청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생활지도 실태는 크게 학생들 간

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과 학생들을 직접 상담한 경험으로 나뉘었다.

교사A는 학생들 간 갈등 해결이나 학생 상담 등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교사였다. 그러나 적은 경력과 미숙함으로 인해 관심을 가져주고 갈등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노력에 비해 실제로 갈등이 해결된 경우는 잘 없었다. 그런 경우에 '경력이 많거나 학생과 같은 성별을 가진 교사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교사B 또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아 상담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와 같은 학생 상담 지도를 '수다'라고 표현하며 특유의 생활지도방식으로 학생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에들한테도 수시로 물어보고, **애들이 (자신들끼리의) 비밀을 은근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야 너 여자친구 있다매?" 하면 "어 뭐야 누가 얘기했어요?" 이려고. (중략) 혼내면 튕겨 나갈 것 같은 학생은 그 친구들한테 "개 학교 좀 나오라고 얘기해봐라" (중략) 다행히 그 학생은 일수가 다 맞아서 졸업은 했어요." (교사B)

교사C 또한 수년간의 경력으로 학생들과의 상담 빈도가 높고 갈등 해결 정도가 높았다. 특히 자퇴를 원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상담지도도를 바탕으로 이러한 학생들을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시켰다. 교사C는 '가정에서 문제행동을 유발' 한다는 판단 하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도 생활지도의 큰 비중을 두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

해 졸업조차 위태로웠던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D는 스스로 '교육의 방향이 엄한 편'이라고 표현하였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만큼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는 학생들과의 갈등이 많은 편이었고,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는 빈도나 상담 경험이 적은 편이었다. 상담 빈도가 있기는 했으나 학생 상담에 자신감이 없었고, '상담은 전문 상담 교사에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하며 상담 교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어필하였다.

셋째,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정보요구에 따라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정보요구는 크게 정보요구빈도와 정보이용동기로 구분된다.

교사A는 전반적으로 정보요구빈도가 높고, 생활지도 전반에 정보이용동기가 있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생활지도는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훨씬 어렵게'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초입 시절에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매달렸다'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메모하는 방식의 정보추구행태를 선호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요구빈도는 '년도 별로 1~2번', 부임 이후 총 4~5번 정도가 있었다.

교사B도 생활지도를 수업보다 어려운 업무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인권업무, 즉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보이용동기가 높았다. 교사B는 주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나 참고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정보문제가 해결되는 빈도는 낮았다. 그 이유는 교

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정보원이 '너무 방대해서' 단위학교에 개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학교에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고자' 했지만 '자료의 양이 많아서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교사B는 교육청의 매뉴얼이 학교 개별화에 실패한 사례로 '여학생들에게 적합한 생리와 관련된 인권 정보를 남자고등학교에 보내준' 일화를 제시했다.

교사C는 학생인권조례나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정보요구빈도가 낮았다. 주로 그 외 기타 교육지침에 대한 정보요구가 있었다.

"학년부 체제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학년부랑은 좀 다른. (중략) 교무, 학생, 연구, 이런 데가 일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건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토론회, 대토론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그게 과반이나 이런 게 안 넘어요." (교사C)

교사D는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정보이용빈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웹자원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다. 그 이유는 생활지도가 정성적인 부분인데 비해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은 정량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B와 마찬가지로 학교 맞춤형, 지역과 연계된 정보에 대한 동기가 있었으나 정보탐색결과가 개인별 맞춤화가 되지 않아 적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D는 정보이용동기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여 정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다.

피면담자들과의 심층면담을 내용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상관관계에 있는 요인을 크게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내용의 범주는 ‘생활지도 정보요구’, ‘학생생활지도 실태’이다. 이에 따른 하위 요인은 <표 4>와 같다.

선행연구들과 예비연구를 통해 나타난 내용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정보요구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 3.2 연구모형 및 가설

교사의 생활지도 정보요구와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질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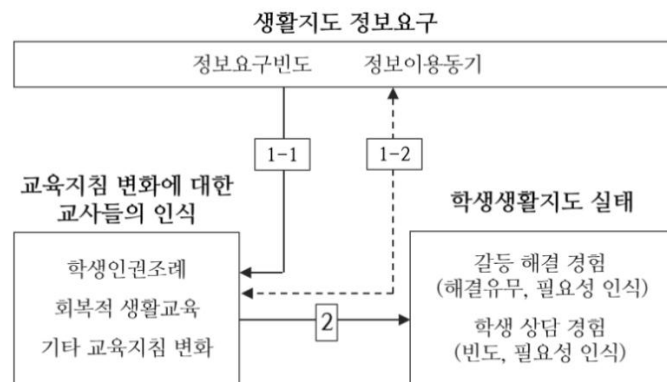
• **가설 1.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요구 (정보요구빈도, 정보이용동기)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1.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요구 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이용동기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한 내용분석 결과

범주	하위 요소
생활지도 정보요구	정보요구빈도
	정보이용동기
학생생활지도 실태	갈등 해결 경험
	학생 상담 경험



\* 표시된 번호는 가설번호임  
 \*\* 실선은 인과관계, 점선은 평균차이분석을 나타냄

<그림 1> 연구모형

• 가설 2. 교사들의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학생생활지도 실태(학생 간 갈등 해결, 학생 상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 간 갈등 해결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 간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4.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

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도구 개발

설문 문항의 구성은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8문항, 생활지도 정보요구 8문항, 학생생활지도 실태 11문항, 정보추구결과 8문항, 피면담자의 개인적 특성 6문항을 포함하여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문항은 김영래(2014), 강호관(2010), 이언영(2010), 안다인(2018), 계민정, 김기영(2019)의 연구 및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설문 문항 구성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설문 문항 구성 및 출처

구분	변인	문항 내용	문항수	출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 교육적 필요성 인식, 역기능 인식	6	김영래(2014) 예비연구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인지도, 교육적 필요성 인식, 역기능 인식	6	김영래(2014) 강호관(2010) 예비연구
	기타 교육지침 변화	기타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지도, 교육적 필요성 인식, 역기능 인식, 교육청의 관련 자료 제공	6	이언영(2010) 예비연구
생활지도 정보요구	정보요구빈도	정보요구빈도	1	안다인(2018) 계민정, 김기영(2019)
	정보이용동기	이용 동기, 정보원, 정보원 선택 시 고려사항, 연구회 참여 여부 및 필요성 인식	7	안다인(2018) 계민정, 김기영(2019) 예비연구
학생생활지도 실태	갈등 해결 경험	경험의 유무, 해결 방안, 필요성 인식	6	이언영(2010) 예비연구
	학생 상담 경험	상담 빈도, 상담 시간, 상담 빈도가 낮은 이유, 필요성 인식	5	예비연구
정보추구결과	정보원 만족도	동료교사, 전문가, 교내·외 연수, 논문·보고서·저널, 최신동향정보·기사·뉴스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	8	예비연구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	연령, 성별, 담당 과목, 경력, 소속 부서, 담임 경험 유무	6	-

### 3.4 설문 대상 및 표본

본 연구의 모집단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설정하였다. 표본은 경기도를 김포-고양권역, 의정부-남양주권역, 성남-안산-안양권역, 수원-용인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3개 학교씩 비율을 맞추어 총 12개교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2020년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였다. 주로 경기도 교육청 소속 중등학교의 학교장을 통하여 각 학교 교사들에게 구글서베이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249부의 응답지를 회수하였다. 데이터 검토 과정에서 불성실 응답, 중복 응답 및 결측값 3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7부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3.5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평가항목)들을 기준으로 요인을 구분하는 R-type 요인분석으로 변인들을 요인별 추출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측정변수의 구성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의미 분석을 위한 회전 방법으로는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의 경우 요인과 문항 간 상관 정도로 베리맥스와 같은 직각회전 방식에서는 상관계수를 0으로 가정했다. 보통 0~1 사이 값을 갖는데 0.5 이상이면 해당 요인과 적절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했다.

KMO(Kaiser-Meter-Olkin) 측도는 변수들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수 숫자와 케이스 숫자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이다. KMO가 0.5보다 크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때 상관계수의 행렬이 대각행렬이면 요인분석이 부적절하다. Bartlett의 검정 유의확률이 0.5 이하이면 대각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사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설문문항의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평가 방법인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활용하였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6 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요인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요인분석의 적합성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정제화 기준에 따른 부하량 0.5 이하의 낮은 문항은 제거하였다.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는 0.76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여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요인 척도에서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통성(communality)은 모두 0.5 이상이므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7문항에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설명된 총 분산은 요인 3개가 입력변수의 67.79%를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3개의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의 인식으로 '학생인권조례', 두 번째 요인을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세 번째 요인을 기타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으로 '기타

〈표 6〉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설문번호) 설문문항	요인1 (학생인권 조례)	요인2 (회복적 생활교육)	요인3 (기타 교육지침 변화)	Cronbach's Alpha	Eigen Value
(3) 학생인권조례의 인성 교육 도움 정도	.821	.207	.134	.874	1.37
(4)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소통 도움 정도	.835	.125	.129		
(9) 회복적 생활교육의 생활지도 연관성	.406	.775	.217	.922	1.14
(10) 회복적 생활교육의 인성 교육 도움 정도	.459	.734	.262		
(14) 교육지침 변화의 필요성 인식	.113	.266	.709	.668	1.35
(15) 교육지침 변화의 교육학적 도움 정도	.141	.218	.755		
(18) 교육지침 변화와 교육청의 정보 제공 정도	.220	.104	.528		
KMO(Kaiser-Meter-Olkin)					.771
Bartlett 구형성 검증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020.105
				df	45
				p	.000*

교육지침 변화'라고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요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874, 회복적 생활교육이 .922, 기타 교육지침 변화는 .668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 48명(22.1%), 사회계열 40명(18.9%), 예체능계열 32명(14.3%), 특수교육 및 기타 교과 13명(6.0%)으로 뒤를 이었다.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182명(83.9%), 맡은 경험이 없었던 교사는 35명(16.1%)이었다.

## 4. 연구 결과 및 분석

###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대상 교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217명의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자가 123명(56.7%), 남자가 94명(43.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116명(53.5%), 40대가 60명(27.6%), 30대가 33명(15.2%), 20대가 8명(3.7%)으로 나타났다. 담당 과목 계열은 인문계열이 84명(38.7%)

### 4.2 가설 검증

4.2.1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정보요구 빈도, 정보이용동기)는 교육청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는 정보요구빈도와 정보이용동기 요인으로 나뉜다. 정보요구빈도가 교사들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보요구 빈도를 매일 3회 이상, 매일 1~2회, 격일, 주 1~2회, 월 1~2회, 연 1~2회로 나누어 이를 연속형 변수로 역코딩하여 단순회귀분석

〈표 7〉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17)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여	123	56.7
	남	94	43.3
연령	20대	8	3.7
	30대	33	15.2
	40대	60	27.6
	50대 이상	116	53.5
담당 교과	인문계열	84	38.7
	자연계열	48	22.1
	사회계열	41	18.9
	예체능계열	31	14.3
	특수 및 기타	13	6.0
담임 경험	담임 경험 있음	182	83.9
	담임 경험 없음	35	16.1

을 진행하였다. 교사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정보이용동기는 학생인권조례, 회복적 생활교육, 기타 교육지침에 대한 동기로 나누었고, 각각의 동기 요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교육지침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설 1-1.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요구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요구빈도가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단순회귀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 설명력은 3.3%

( $R^2 = .033$ )이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2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요구빈도는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eta = .181$ ,  $p = .008$ ).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 가설 1-2.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이용동기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이용동기 중 학생인권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본

〈표 8〉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정보요구빈도, 교육지침 인식 영향 관계 분석

변수	교육지침 인식			P
	B	SE B	$\beta$	
Intercept	2.784	.189		.000
정보요구빈도	.184	.168	.181	.008*
Durbin-Watson = 1.924			$R^2 = .033$	

\* $p < .05$



다고 답변한 교사는 71명,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본다고 답변한 교사는 86명, 기타 교육지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라고 답변한 교사는 60명이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 이용 동기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 비교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통계에 따르면 '학생인권, 교권 등 학생인권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3.4점(±.5)으로 가장 높고,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 해결 절차 등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3.3점(±.5), '기타 교육청이 변경한 지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3.1점(±.6)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8, scheffe: a>c). 따라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4.2.2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학생 간 갈등 해결, 학생 상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 실태는 학생 간 갈등 해결 경험과 학생 상담 경험으로 나뉜다. 또한 학생 간 갈등 해결 경험은 경험과 필요성 인식, 학생 상담 경험은 빈도와 필요성 인식으로 나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설 2-1.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 실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갈등 해결 실태는 갈등 해결 경험의 유·무와 필요성 인식으로 나뉜다.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17명 중 173명, 해결한 경험이 없는 교사는 44명이었다. 교육지침 인식이 갈등 해결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이 교사가 학생들 간 갈등에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Hosmer & Lemeshow  $\chi^2=2.445$ , p=.484),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이다(Nagelkerke  $R^2=.090$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719, p=.001). 교육지침 인식이 한 단계 증가하면 학생 간 갈등 해결이 1.71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배수의 하한선은 1.266배이며 상한선은 2.333배이다(95%CI: 1.266~2.333).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표 9> 정보이용동기에 따른 교육지침 인식 비교

(N=217)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학생인권, 교권 등 학생인권조례를 이용하기 위해서(a) (n=71)	3.4	.5	4.067	.018* (a>c)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 해결 절차 등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b) (n=86)	3.3	.5		
기타 교육청이 변경한 지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c) (n=60)	3.1	.6		

〈표 10〉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 학생 간 갈등 해결 영향 관계 분석

변수	갈등 해결 경험				P
	B	S.E.	OR	95%CI	
교육지침 인식	.542	.156	1.719	1.266~2.333	.001*

-2LL=206.057, Hosmer & Lemeshow test:  $\chi^2=2.455(p=.484)$   
Nagelkerke  $R^2=.090$

\*p<.05

- 가설 2-2.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이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하에 단순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을 리커트 5점 척도의 연속 변수로 계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이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모형 설명력은 4.7%이며( $R^2=.047$ ),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2로 2에 근사한 값을 가지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은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beta=.217, p=.001$ ).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 가설 2-3.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 상담 경험은 학생 상담 빈도와 학생 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학생 상담 빈도는 주 3~4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로 구분하여 이를 연속형 변수로 역코딩한 뒤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사의 학생 상담 빈도가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모형 설명력은 0.0%이며, 학생 상담 빈도는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14, p=.840$ ).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 가설 2-4.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학생 상담

〈표 11〉 교사의 교육지침 인식,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 영향 관계 분석

변수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			P
	B	SE B	$\beta$	
Intercept	2.715	.382		.000
교육지침 인식	.374	.115	.217	.001*

Durbin-Watson = 1.932  $R^2=.047$

\*p<.05

〈표 12〉 교사의 교육지침 인식, 학생 상담 빈도 영향 관계 분석

변 수	학생 상담 빈도			P
	B	SE B	$\beta$	
Intercept	1.852	.296		.000
교육지침 인식	-.018	.089	-.014	.840
Durbin-Watson = 1.911			R <sup>2</sup> = .000	

\*p<.05

〈표 13〉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 교사의 교육지침 인식 영향 관계 분석

변 수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			P
	B	SE B	$\beta$	
Intercept	3.828	.264		.000
교육지침 인식	.229	.079	.193	.004
Durbin-Watson = 1.750			R <sup>2</sup> = .037	

\*p<.05

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상담 필요성 인식을 리커트 5점 척도의 연속 변수로 계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이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모형 설명력은 3.7%(R<sup>2</sup>=.037)이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750으로 2에 근사한 값을 가지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은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eta$  = .193, p = .004). 따라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 4.3 결과 토의

본 연구는 교사들의 교육청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실태 및 정보요구와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과의 관계를 밝히고,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의성 검정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가설 중 채택 여부는 〈표 14〉와 같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사들의 정보요구는 교육청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과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높은 정보요구빈도가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원인이 된다. 이는 정보문제 발생 그 자체가 인식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정보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도식과 새로운 정보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이용동기에 따라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나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인해

〈표 14〉 가설 채택 여부

순서	가설	채택 여부
<b>가설1</b>	<b>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요구(정보요구빈도, 정보이용동기)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b>	<b>채택</b>
1-1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요구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이용동기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b>가설2</b>	<b>교사들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학생 간 갈등 해결, 학생 상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b>	<b>부분채택</b>
2-1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 간 갈등 해결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 간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주로 정보를 이용하는 교사들보다 기타 교육청 변경 지침들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교사들의 평균적인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생활지도 정보문제와 관련하여 ‘공식화된 요구’가 있는 교사들이 ‘의식화된 요구’가 있는 교사들보다 평균적인 인식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지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화된 요구들을 공식화된 요구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이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분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한 경험과 해결 필요성 인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과의 접촉 및 생활지도 경험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도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와 반대로 학생 상담 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기각의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상담 빈도는 ‘주 3~4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의 범주로 나누어 설문 응답을 받았으나 가장 낮은 빈도인 월 1~2회의 상담도 교사들이 상담을 많이 하지 않는 상태로 볼 수는 없다. 즉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 인식이 학생 상담 빈도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5. 학교도서관 교직원 서비스 제안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는 교

사들의 교육지침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는 교육청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연구와 본연구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 제공 자료의 단위학교 맞춤형 편집 서비스이다. 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육지침을 단위학교에 하달할 때 정확한 인지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해당 매뉴얼은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원이었다. 그럼에도 예비 연구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일괄 배포되는 매뉴얼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단위 학교에 맞지 않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교사들은 생활교육 정보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서 교육청 제공 자료들을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것들만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편집·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업무용 기록물 아카이빙 서비스이다.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정보요구가 발생했을 때 동료교사나 부장·상담 교사 등 타 교사 정보원을 선호하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예비연구 시 시행했던 심층연구에서 한 교사는 '특히 초임 때는 경력 교사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매달려야 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인적 정보원에

대한 면대면 정보추구행위는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교사들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으나 내향적인 교사들에게는 심리적으로 고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차원에서 경력교사들의 업무용 기록물들, 그 중에서도 노하우 자료들을 아카이빙하여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자료나 연수용 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정보 전문성에 의존한 적극적 대면봉사다. 학생생활교육은 교과교육과는 달리 불분명한 목표와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면적 요구', 혹은 '의식화된 요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통계분석 결과 교사들의 정보요구가 명확하고,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았을 때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지침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의식화된 요구를 공식화된 요구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생활지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의 내면적 정보요구를 표현하게 만드는 단계는 사서교사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까지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가진 정보 전문성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최선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를 해결한다면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도서관의 존재 목적을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6. 결론 및 제언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서관이다(이병기, 2018). 즉 학교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자료와 시설을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이때 학교교육은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으로 나뉜다. 선행연구(김유중, 2017; 김정미, 이제환, 2010; 김중환, 2001; 문미화, 2001; 박선미, 2012)에 따르면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정보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비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가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교육지침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생활교육 실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고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를 해결하고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정보요구의 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사들의 정보이용동기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지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요구할수록 인식은 긍정적이며, 해당 정보요구가 구체적일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이 학생 간 갈등

해결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만든다.

다섯째,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은 학생 상담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인식이 학생 상담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의 교육지침 인식 개선을 위해 사서교사는 학생생활교육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구별되게 교사 대상의 서비스는 '진보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에 기여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 목적 달성의 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 제공 자료의 학교 개별화 편집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가장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교육청 제공 정보들을 짧은 시간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업무용 기록물 아카이빙 서비스이다. 경력교사들의 업무용 기록물을 학교도서관 차원에서 아카이빙 한다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정보원인 교사(인적) 정보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사서교사의 정보 전문성을 활용한 적극적 참고봉사이다. 개별 교사들을 향한 면대면 참고봉사를 통해서 교사들의 내면적 요구나 의식화된 요구를 공식화된 요구로 발전시킴으

로써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의 생활교육 실태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가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교육지침의 인식이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했다. 즉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진 생활지도 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를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학교도서관 서비스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단,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정보전문가인 사서교사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사서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에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 대상 서비스조차 만족스럽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학교도서관이 존재하는 만큼 교사 대상 서비스에 시간을 쏟을 여력이 사서교사에게 남아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후속 연구로 교과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직접 적용하고 해당 정보서비스의 순기능과 한계점을 사서교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계점에 대비한 전략적 대책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강인구, 김광수 (2015). 회복적 생활교육 개입이 학급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43-61.
- 강호관 (2010). 공·사립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만족도와 학생생활지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계민정, 김기영 (2019). 교과 교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인식이 교육정보요구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6(1), 169-190.  
<https://doi.org/10.3743/KOSIM.2019.36.1.169>
- 김영래 (2014).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초등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변화.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초등교육행정 전공.
- 김유중 (2017). 교육전문대학원생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김은아 (2017). 회복적 생활교육에 근거한 활동중심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행동분석·지원연구*, 4(1), 49-73.
- 김정미, 이제환 (2010). 초등학교 교사의 정보행태와 도서관 이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223-232.
- 김중환 (2001). 교사의 직업능력개발영역에 대한 정보요구의 조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

- 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 문미화 (2001).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사발달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주제와 정보출처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행정전공.
- 박선미 (2012). 초등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정보탐색 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행정전공.
- 박창우 (2019.06.13.). 인천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기신문, 출처: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52109>
- 박채형 (2019). 책슨의 잠재적 교육과정과 그 이후. 도덕교육연구, 31(2), 163-185.
- 서정기 (2011).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신윤정 (2018). 교과교사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협력수업 시행의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 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안다인 (2018). 교사의 학교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이병기 (2018). 학교도서관 경영 통론. 서울: 조은글터.
- 이언영 (2010). 중등 과학수업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발전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
- 이지연, 김준섭 (2016).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4), 201-223. <https://doi.org/10.3743/KOSIM.2016.33.4.201>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368호.
- Deng, L. (2014). The evolution of library reference services: from general to special, 1876-1920s. Libri, 64(3), 254-262. <https://doi.org/10.1515/libri-2014-0019>
- Dervin, B. (2008). Interviewing as dialectical practice: Sense-Making Methodology as exemplar.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Annual Meeting, Sweden.
- Gonzalez, T. (2012). Keeping kids in schools: restorative justice, punitive discipline, and the school to prison pipeline. Journal of Law and Education, 41(2), 281-335.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UNESCO (2015). IFLA/UNESCO school library guidelines. IFLA Professional Reports, 77.
- Kim, K. A. & Roth, G. L. (2011). Novice teachers and their acquisition of work-related information. Current Issues in Education, 14(1).



- Leckie, G. J., Pettigrew, K. E., & Sylvain, C. (1996).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of professionals: A general model derived from research on enginee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lawyers. *Th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66(2).  
<https://doi.org/10.1086/602864>
- Lustick, H. (2016). 'Restorative Justice' or Restoring Authority? Restorative School Discipline Practices in Urban Public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Payne, A. A. & Kelly W. (2015). Restorative justice in schools: the influence of race on restorative discipline. *Youth & Society*, 47(4), 539-564. <https://doi.org/10.1177/0044118X12473125>
- Perrault, A. M. (2007). An Exploratory Study of Biology Teachers' Online Information Seeking Practices. *School Library Media Research*, 10.
- Shipman, T., Susan H. B., & Kimberly N. (2015). The information-seeking habits of in-service educator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6(2). <https://doi.org/10.5860/crl.76.2.120>
- Tanni, M. (2012). Teacher trainees' information acquisition in lesson planning. *Information Research*, 17(3).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An, da-inn (2018).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eachers' Perception of School Libraries: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do,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Gye, Min-jung & Kim, Ki-young (2019). Effects of teachers' application and percep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on educational information needs: focusing on common subjects in high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169-190.  
<https://doi.org/10.3743/KOSIM.2019.36.1.169>
- Kang, Ho Kwan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Student Guidance in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eon University.
- Kang, In-gu & Kim, Kwang-soo (2015). The effect of restorative education intervention on class cohesio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4(1), 43-61.
- Kim, Eun-ah (2017). Effect of an activity-oriented conflict resolution program based on restorative education on the communi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Behavior Analysis and Support*, 4(1), 49-73.

- Kim, Joong-han (2001). A Study on the Information Need for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Kim, Jung-mi & Lee, Jae-hwan (2010). Information behavior and library usage by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Proceedings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223-232.
- Kim, Young-rae (2014). Changes in Guidan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in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Yu-jung (2017).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age Behavior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Lee, Byung-ki (2018). A General Outline of School Library Management. Seoul: Joeungeulteo.
- Lee, Eon-young (2010). A Study of the Teacher's Recogni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about Personality Education in Secondary Science Class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 Lee, Ji-yeon & Kim, Jun-seop (2016). Analysing the trends of Korean information user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201-223.  
<https://doi.org/10.3743/KOSIM.2016.33.4.201>
- Libraries Act. Act No. 17706
- Moon, Mi-hwa (2001). Analysis the Information Theme and Information Source by the Need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ccording to Teacher's Development Stag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Park, Chae-hyung (2019). Jackson's hidden curriculum and beyond.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2), 163-185.
- Park, Chang-Woo (2019, June 13). The Incheon Metropolitan Education Office of is also Pushing for the Enact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Gyeonggi Newspaper, Available: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52109>
- Park, Sun-mi (2012). A Study on the Form of Educational Information Search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in University of Education.
-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Act No. 15368
- Seo, Jung-gi (2011).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Conflict Experience and Resolution Process of School Violence: Focused on Victim-Offender Mediation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Shin, Yoon-jung (2018). The Effects of Teac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about School Libraries to Collaborative Instruction on the Willingness: Focusing on Seoul High Schoo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